〈제 4호〉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

97교회 표어
"예비하라"
(눅 3:4)

발 행 : 편집부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됩니다) 1997년1월

예 비 하 라

—눅 3:4

이재철 목사

묵은해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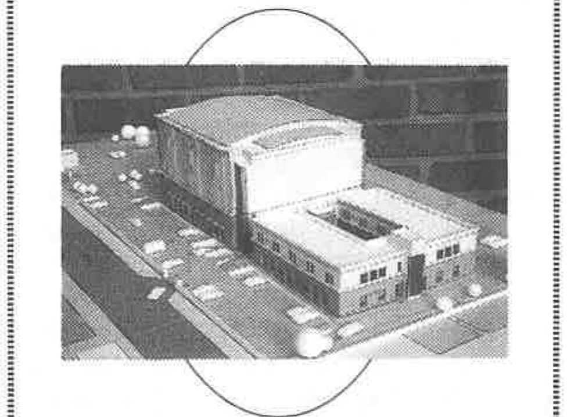
새해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그렇기에
젊디 젊은 사람이
묵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황혼에 접어든
백발노인이
새 삶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느냐
에 따라
우리의 한평생이
이렇듯
판가름 납니다.

정신여고 강당 조감도



신축개요

▲연면적: 2,357평
▲층 수: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수: 옥내 30대, 옥외 179대
▲좌석수: 중강당 304석, 대강당 2200석, 성가대 65석
▲설 계: 우리건축설계사무소 이귀영 집사

97변화 보리라

예수님 마구간으로 오셨네
천지인 변화를 보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천지인 변화를 보시기 위하여
예수님 3일만에 부활하셨네
천지인 변화를 보시기 위하여
내가 변했네
그러니 우주만물이 변했네
당신이 변했네
그러니 가정이 변했네
우리가 변했네
그러니 세상이 변했네
내가 변하니
당신이 즐거워하네
당신이 변하니 가정이 즐거워하네
우리가 변하니
세상이 즐거워하네
내가 변하니
성부하나님이 즐거워하네
당신이 변하니
성자 예수님이 즐거워하네
우리가 변하니
보혜사 성령님이 즐거워하네

1997. 1.5.새해 첫 주일날 이충길 집사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꿈을 꾸면…

정용섭 집사
(데이타게이트 대표)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외국어를 잘 하려면 늘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그 언어가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외국어로 꿈을 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당시 나는 스스로도 꽤 열심이라고 여길만큼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질 못했다.

그러나 그후, 세월이 지나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게 되었을 때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니 간밤에 정말 영어로 꿈을 꾼 사실이 기억나 한참을 신기해 한 적이 있었다. 생각해 보면 신기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꿈은 대부분 자신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고가 작용하는 것이라서 꿈속이라도 외국인을 만나면 당연히 알고 있는 외국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얼마나 외국어가 자기 생활화되어 있나를 아는 방법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언어로 사고하며 반응하느냐 하는 것일 게다.

한 영국군 포로가 포로수용소를 탈주하여 독일인 행세를 하며 도주하던 중에 벌어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그 포로가 버스에 승차할 때 한 독일 장교가 양보해 주었더니 이 영국군 탈주병은 자신도 모르게 "Thank you!"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는 독일인으로 행세했지만 그의 내면은 영어로 사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외국인을 옆에 태우고 운전할 때의 일이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Oops!"했더니 그 외국인이 물었다. "당신 나라에 있을때도 놀랄때는 Oops라는 표현을 씁니까?"확실히 나는 그 때 영어로 사고하고 있었는 생각이 든다.

내가 오늘 이러한 생각들을 해 보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서이다.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여 내가 무엇을 믿으며 또 주기도문을 외우며 어떻게 믿는가를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조금씩이나마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묻지 않을까?"예수님과 관련된 꿈을 꾸어 보셨습니까?"예수님이 내 생활의 일부라면 당연히 꿈도 꾸게 될 것이고 어렵거나 두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예수,이어야 할 터인데….

탈주한 영국포로처럼 내 속에 숨어있는 본심(?)이 튀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나는 얼마전에 조금은 위로가 될만한 꿈을 꾸었다. 꿈에 나는 여행중이었고 혼자였다. 어떤 모텔 같은 곳에 들러 잠을 자려 하는데 돌연 무서운 생각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혼자 자려고 하면 느꼈던 그런 두려움이었다.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까?"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람같은 것이 홀연히 불더니 벽에 걸린 옷같은 것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를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이것이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하곤 절대로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똑바로 그 움직이는 것들을 응시하며 손에 젓가락 같은 막대기를 들고 대항하려 했다. 그러나 무서움은 점점 더해 갔고 나는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느껴졌다.

이때 돌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아마도 박효진 장로님한테 듣고 배웠나 보다). 순간 모든 것은 잠잠해지고 나는 승리를 만끽하며 마음에 평안과 큰 기쁨을 맛보며 꿈에서 깨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그 여운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린애들이나 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의기양양하다니… 정말 나타나기만 해봐라. 아주 큰 소리로 지르리라.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유혹이 있을 때, 나는 나의 신앙의 'Oops,인 '예수,를 내가 말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해 본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을 온통 지배하여 내가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결심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고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쓰시는 Oops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쓰는 thank you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강정호 목사

제가 신대원 1학년에 다닐때의 일입니다. 그 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도 꾸려야 했고 늦깎이 학생으로서 학교도 다녀야 했는데 이 두가지 일을 무리없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결혼할 때 장만했던 조그마한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외진 교외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빚을 갚고 전셋집을 얻고 나니 남은 것은 다시 빈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팔고 나자 때마침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백만원이 오르고 한 달이 지나자 이백만원이 오르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진정할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저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습니다.

"조금만 참을 것을! 이백만원만 오른 후에 팔았어도 학기초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아쉬움과 후회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그 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마태복음 4:4(신명기 8:3)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함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광야생활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할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 짐승을 기를 수 있었느냐? 옷감을 만들 수도, 신발을 지을 수도 없었고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지 않았느냐? 낮에는 작열하는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없고, 밤에는 추위를 막을 수 없는,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약자,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2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너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냐? 어찌하여 떡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떡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떡 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97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새 책

1. 들의 꽃·공중의 새 (홍성사·믿음의 글들 136) -이기반 지음
2. 예수의 도 (홍성사·믿음의 글들 142) -이기반 지음
3. 빌리그레이엄의 천사 이야기 (홍성사·믿음의 글들 150)
4. 도사님 목사님 (홍성사·믿음의 글들 151) -김해경 목사 지음
5. 묵상의 숲속에서 (홍성사) -이기반 지음

친구여! 이제 우리는…

황진 성도(장애인 화가)

태초에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물하신 것은
밝은 태양,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의 노랫소리
오곡과 맛있는 과실이 넘치는
진정 우리들의 천국이었네.

그러나 우린
은밀한 충동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끝내
우리들의 낙원을 떠나야만 했네.

소중한 생명의 깨달음도 없이
우리가 이기적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숨가쁘게 달려온 수억만 년의 세월은
그저 불신과 갈등, 그리고 끝없는
분쟁과 혼란의 역사가 되고 말았네.

나의 소유를 위해
너의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야 했고
내가 오르기 위해, 너를 마구 짓밟아야 했던 우린
발전이란 허울로 포장해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까지 파괴하고 말았네.

이미, 너와 나 함께인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진 오늘
일그러지고 찢기운 형편없이 추악해 보이는
이 끔찍한 몰골이, 서로의 마음속에 비추이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네.

친구여! 이제 우리는
이제껏 추구한 욕망의 끝의 헛됨을
깨달아야 할 시기를 맞았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세
분쟁을 화해로 굴복시키고
소유를 나눔으로
불의를 정의로
거짓됨을 진실함으로
방탕함을 성실함으로
독선보다는 조화롭게
좌절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성급한 체념보다는 인내와 의지를
많고 높음보다는 적고 낮음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세.

그리고 우리의 아픔조차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햇빛처럼 찬란하고 따스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함께 다시 찾도록 함세.

친구여! 이제 우리 시작하세
어린아이 마냥 순수한
작은 미소로부터.

손톱깍기

신철범 목사

정민이는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얼굴에다가 자기의 손을 비벼대기 때문에 날카로운 손톱은 여지없이 얼굴에 손톱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정민이 손톱깎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지난달은 연말이라 바빠서 정민이 손톱에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어느새 얼굴에 몇 개의 훈장을 그려 놓았습니다.

"정민아! 그 사이를 못참고 또 얼굴에 상처냈니?" "…." "아빠가 지난달은 조금 바빠서 네 손톱 깎는 일을 잊어버렸구나." "어어 잉!"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시간을 내서 꼭 깎아주마. 아빠가 저녁에 올때까지 얼굴에 상처내면 안돼."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정민이 얼굴에는 어느새 또 새로운 손톱자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제 아빠하고 손톱 깎자구나" "…." "자 이제 오른손부터 깎자." "정민아! 가만 있으라니까." "어어--." "자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자구나." "…." "정민아 이제 아빠 임무수행 끝!"

저는 손톱을 깎고 다듬는 일까지 마치고 정민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길게 자란 손톱을 다 깎고 단정한 손톱으로 변한 손으로 얼굴을 비비는 정민이를 내려다보며 저는 작년 한해동안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쓴 뿌리로 인해 얼마나 자주 내 영혼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할퀴며 지내왔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날카로운 쓴 뿌리를 단정하게 가꾸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밉시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피지의 戰士

이동규 목사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서울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피지에 들렀습니다. 2시간 가량 한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공항대합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대합실내 상점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구경하던 중 한 목각인형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목각인형이었지만 왠지 순진하고 묵묵해 보이는 그 표정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점원 아가씨에게 나와 아내만이 알아듣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형입니까?" 그러자 그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피지 원주민 전사'의 목각인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정말 그 목각인형은 오른손에 자기 키보다 더 긴 창을, 왼손에는 나무 방패를 앞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는 것 같으면서 우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두 발을 힘있게 땅에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각인형이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목각인형일 수도 있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목각인형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표정하고 바보스러운 듯한, 그러나 신실하고 당당해 보이며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 전사의 얼굴속에서 내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은 그 전사의 얼굴에서 내가 가져야하는 얼굴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피지의 전사'는 우리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무표정한 전사의 얼굴 그대로, 바보스러운 듯한 웃음띤 얼굴 그대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 꽉 다문 입술 그대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전사의 얼굴 그대로 내 방 한 구석에 그 맨발의 두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의 거센 바람이 피지를 삼킬듯 달려들었을 그 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며 당당하게 내 방 한구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변용진 목사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몇 년전 제가 살던 집 뒷마당에 고추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들여 키운 탓에 나무마다 보기 좋은 고추를 맺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몇 그루의 나무는 많은 고추를 맺은데 반해 다른 나무는 그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고추나무의 주인인 저는'같은 땅에 심어 같은 분량의 수분을 받는데 왜 어떤 나무는 고추를 많이, 다른 나무는 고추를 적게 맺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추나무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추측해 볼 수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추를 맺어 자신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우월감에 빠진 나머지 옆에 있는 다른 나무를 없신 여기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고추가 보기 좋게 열리지 못한 탓에 다른 나무들을 부럽게 쳐다 보기만 하며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같은 옥토에 떨어져 동일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한 씨앗들이라도 결실하는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니라"(마 13:23) 여기에서 예수님은 몇 배로 결실하였는가에 따라서 칭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삼십배, 육십배, 백배로 결실한 모두를 하나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결과로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결실의 내용을 더 중요시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결실하는 자의 자세를 보십니다. 남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좋은 땅에 거하려고 노력하며 정도를 걷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므로 지혜가 없습니다" (고후 10:12)

97년도 교역자 업무 분장

교회에 업무가 있는 성도들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해당 담당교역자와 상담하면 좋은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담당교역자	업 무	담당교역자	업 무
김화수 목사	①교회행정관련업무 ②당회·노회관련업무 ③성찬예식 ④4부 성가대 ⑤2남·녀 선교회	정한조 전도사	①구역공부교재 ②교육전도사 회의 ③4부 찬양예배 인도 ④유아세례 교육 ⑤대외부서 지원
안사무엘 목사	①예배관련업무 ②찬양예배 인도 ③주보작성및 교정 ④3부 성가대 ⑤3남·녀 선교회	김효숙 전도사	①교육부 관리 ②교육프로그램및 강사섭외 ③가족찬양예배 ④유아세례 ⑤가정예배지
강정호 목사	①결혼식 업무 ②구역명단 작성 ③Y관련업무 ④2부 성가대 ⑤4남·녀 선교회	김성식 전도사	①절기글씨담당 ②구역장 성경공부도움(후) ③음향담당및 행사사진 ④주부성가대 ⑤1남·녀 선교회
신철범 목사	①사진수첩 ②주일 통계 ③세례예식 담당 ④1부 성가대 ⑤5남·녀 선교회	강석영 전도사	①구역평점및 보고 ②구역장 성경공부도움(전) ③성경 완독 ④남성성가대 ⑤세례교육

차량상식 겨울철 차량점검 요령

이대인 집사
(포이동 도리 카센터)

아무리 추워도 자주 운동을 하고 영양분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자동차도 평소에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한다면 겨울은 하얀 설원과 함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의 계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겨울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자.

◇ 배터리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시동이 곤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다. 배터리는 화학반응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주는 기능을 한다. 완전히 방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능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배터리 단자를 깨끗이 하여 접착 또는 불량에 의한 전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간주차때 가능하면 실내(지하) 주차장을 이용한다.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경우 배터리 성능이 좋지 않다면 배터리를 분리하여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 서머스 탯

엔진 시동후 엔진블록의 온도가 빠른 시간에 정상 작동온도에 도달하도록 라디에이터를 순환하는 냉각수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가 스머스 탯이다. 서머스 탯의 기능이 나쁘면 냉각수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으며 히터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교환할 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개스 킷도 함께 바꾸어 준다.

◇ 벨트류

흔히 팬 벨트라고 하며 발전기와 파워 스티어링 펌프, 에어컨 펌프레서를 작동시킨다. 겨울철에 시동을 건 직후 '삐익'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발전기에 많은 힘이 걸리고 벨트의 장력이 낮을 때 풀리와 벨트가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다. 이때는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거나 교환한다.

◇ 엔진오일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엔진오일 점도가 높아지므로 겨울용 오일로 교환해 준다. 시동을 걸때 부드럽게 엔진을 예열시키고 실린더의 마모를 줄여준다.

◇ 냉각수 점검

부동액의 함량이 적을 경우 라디에이터 및 실린더 블록이 동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동액이 적당한지 점검한다.

◇ 타이어

겨울철에는 공기가 수축하여 타이어 공기압이 규정치보다 낮아지므로 적당한 압력으로 보정해야 한다. 눈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고려하여 타이어의 트레드 상태도 점검한다. 눈길을 자주 다니는 차는 스노 타이어나 체인을 반드시 준비해 다닌다.

송구영신예배 은혜속에 가져

1997년 1월1일 0시 정신여고 강당에서 송구영신예배를 가졌다.

새해 인사와 더불어 97년도 교회 표어인'예비하라'라는 제목의 목사님 설교가 있었다. 한편 이날 약 1,100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는데 주님의 교회가 창립된 이후 가장 많은 예배참석을 기록하였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교회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몇몇 성도들의 개인·편의주의로 인해 봉사자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여 봅시다.

또한 지각으로 참석한 예배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선통신기기의 발신음으로 인해 예배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차량 주차시 내 차가 다른 차량소통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자세 즉 남을 생각하는 자세가 봉사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재철목사 모친상

지난 96년 12월 21일 오전 8시 30분 본교회 이재철 목사의 모친 고 장순자 권사의 장례예배가 삼성의료원 영안실에서 충신교회 당회장인 박종순 목사님의 집례로 거행됐다.

차량주차 협조 바랍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당부합니다.

1. 교통법규를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지켜주십시오. (정문 통과및 주차시 방향등 표시)
2. 주차시 전면 주차 (잔디 및 수목보호)
3. 동승자 상·하차는 차량의 정체 방지를 위하여 주차장소에서 상·하차.
4. 도로상 주차시는 기아 중립·핸드 브레이크 사용금지

초등부 괌 비젼여행 무사히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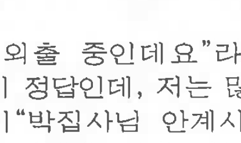
초등부에서는 김진수 전도사의 인솔로 작년 12월23~28일 까지 초등부 학생 및 학부모 포함 80명이 괌비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 하였다. 특히 괌 제일장로교회의 배려로 괌 비젼여행은 많은 학생들의 보람있는 여행이 될 수 있었다.

교인동정

〈이사〉
▲남승호·이영희B 집사: 서울대 사택(874국 0862)
▲진영천·손선아 집사: 일산((0344)912국 2460)
▲김태윤·오순금 집사: 삼선동(3672국 2225)

〈개업〉
▲박시만·신선숙 집사: 여의도 파파이스 개점(782국 8804)
▲김연근·황난숙 집사: 종로점, 춘천점 피자리그 개업(736국 8226)

〈출산〉
▲조상연·박인선 성도: 득남



김도묵 장로

1. 예수님을'당신,으로 불러도 될까요?

"말도 되지 않는다. 당신이란'여보·당신,처럼 부부간 혹은 엇비슷한 서열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에 쓰는 말인데, 어찌 성부나 성자를 당신이라 호칭할 수 있느냐. 버릇없는 행동이다."이에 대한 반론은 "잘 모르시는 말씀, 예로부터 웃어른이나 존경한느 스승을 일컬을때 쓰는 호칭이다.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을 기리는 글월에도'당신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라고 되어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해답을 주시더군요. "3인칭 단수로는 가능하지만 2인칭으로 쓰는것은 불경한 일입니다."라고.

2.'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옳은 표현인가?

'사랑하는 예수님,보다는'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더 높이는 표현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또는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할때 '사랑하다,동사의 주체는 말하는 사람인 설교자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사랑하시는"이라고 하면 말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이런것을'과공(過恭)이 비례(非禮),라고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강변한다면, 이럴 경우에는"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3.'잡수시고…,의'…시고,

젊은 부인들이 윗사람이나 회중 앞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최상급 명칭을 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만일 제 아내인 강권사가 전화를 받는 경우, 상대방이 젊거나 손아랫 사람이 아니면"김장로 외출 중인데요"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저는 많은 부인들이"박집사님 안계시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자기 남편 직분에'님,자를 붙이고'…시고,하는 것은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히눙 앞에서 기도할 때는 솔로몬도 그의 위대한 선왕을 지칭하여'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라고 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윗분이나 대중앞에서 자기 형제를 말할 때'형님,'누님,해서도 안됩니다. 그저'형,'누이,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님, 총리님, 주부님 하는 것도 우스운것 처럼'주의 종님,하는 것도 이상한 표현입니다.(중경 총회장인 임택진 목사님의 지적)

4. 발음 문제

최창섭 집사님이 지적하신 발음 문제에 저도 몇가지 첨언하겠습니다.'원수에게 상을 베풀고,에서의'상,은 음식상을 말하는 床인데(단음) 이를 계속'상:,(장음) 이라하니 잘 해서 주는 賞으로 들리게 됩니다.

레위기에서의 祭物은 제사지낼 때의'제:물,인데 자꾸'제물,로 읽으니까 재산을 말하는 財物이 됩니다.'요한계:시록,해야 할것을 단음으로'요한개시록,하니까 요한이 처음 쓴(開始) 책이 되고 말며'내가 해:(害)를 두려워 하지 않음,을 단음으로 하니까'해(日)를 두려워 하지 않는것,이 되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使者),를'여호와의 사자,하니까 여화와가 보내신 사자(獅子)가 되고, 반대로'젊은 사자,를'젊은 사:자,로 발음하면'나이 어린 전령,이나'젊어서 죽은 자,가 됩니다. 小(혹은 少)數는'소:수,해야 적거나 작다는 뜻이 되지 짧게 발음 하면 素數가 되며,'기쁘게 열람,이나'받들어 봉독,은'처갓집,이나'역전 앞,같이 되어 버립니다.

위에 지적한 것 들 중에서 한문단어의 발음 문제와 장·단음 구별은 한글로만 쓰여진 성경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까다롭고 어려운 주문이겠습니다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역자분들이나 교사 또는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유의 하셔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알고 계십니까

● 예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하는 자기를 높이는 꼴이 됩니다